

# “해수욕장 줄서기 처음...불편 감수해야죠”

코로나19에 바뀐 피서지 풍경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안심 손목밴드 착용 후 입장  
탈의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  
피서객들 대부분 방역 준수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발열체크조차 안해 빈축도



지난 18일 오후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에 앞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명단 작성을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해수욕장 입구에서 줄을 서보긴 처음입니다. 대기시간이 좀 길리지만 코로나를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죠.”

휴가철을 맞은 지난 18일 정오께 찾은 영광군 흥농읍 가마미 해수욕장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해수욕장 좌·우측에 마련된 출입구 두 곳을 거쳐야만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출입구 앞의 입장을 기다리는 인파들이 거리를 두고 길게 늘어서 마치 워터파크를 연상케 했다.

지난 7월 10일 개장 이후 두 번째 주말을 맞는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 탓인지 주말임에도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이용객 밀집도 완화를 위한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운영중이었으며, 이날 3개 시간대(오전 9시~정오·정오~오후 3시·오후 3~6시)에 총 477명이 방문 예약을 하고 해수욕을 즐겼다. 인근에서 슈퍼를 운영 중인 김모(54)씨는 “예년에 비해 방문객이 절반도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을 찾은 모든 방문객들은 4평 남짓한 컨테이너에 들어서서 내부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발열체크를 하고 방역요원이 건네는 ‘안심 손목 밴드’를 손목에 착용하고서야 입장이 허락됐다.

방역요원들은 현장에서 “모든 방문객들은 안심 손목 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수욕장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 해수욕장 안팎에는 “탈의실 등 공용시설 이용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화장실 등 실내공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 안내방송도 계속됐다.

어려운(?) 절차를 뚫고 입장한 해수욕

객 대다수는 거리두기를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었다. 바다에 들어가 해수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화장실 등 공용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거리를 유지한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가족과 함께 왔다는 김수현(48·광주시 서구)씨는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이용객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다녀 안심이다”고 말했다.

다만 줄어든 방문객과 코로나19 방역에 치중한 탓인지 수상 안전관리는 다소 미흡한 상태였다.

수상안전요원들은 망루나 해안선 주변이 아닌 바다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고, 수상보트 역시 트레일러에 고정된 채 모래사장 위에 정박돼 있어 위급상황 발생시 출동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한편 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해수욕장은 발열체크 없이 방문객을 받는 등 불안한 운영을 시작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17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을 찾은 김희용(37)씨는 “정식 개장을 한 걸로 아는데, 기본적인 발열체크도 없이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겨 다소 찜찜하고 걱정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글·사진=김민식 기자 mskim@

## 성추행 피해 중학생 사망사건 진상조사 착수

전남도교육청 대책본부 설치

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남자 중학생이 병원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이 진상조사 등 추가조사에 착수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7일 A군의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냄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면담을 마친 후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소관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영광교육지원청

에 대책본부를 설치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를 대책본부에 참가시키기로 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16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영광 학교폭력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책본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뒤 진상조사에 나설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영광 지역 모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지난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으며,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학교 기숙사에 친구들에게 당한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여고 운동부 지도자 상습 성추행 혐의 수사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 모 여고 운동부 소속 여고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전 운동부 지도자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수에서 진행된 전지훈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고,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전지훈련지를 벗어나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성비위 관련 사례로 보고,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최근 5년 사이 농구, 배구, 축구, 소프트볼, 유도, 야구 등 운동부 전반에 걸쳐 성비위와 닮은 꼴 등 7건의 사건이 접수돼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 스쿨미투’ 교사 5명 항소심도 벌금형

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광주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여고 교사 5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의 항소심에서 윤모(60)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 나머지 2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청소년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추행이나 신체적 학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2016~2018년 재직 중이던 광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

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손에 깎지를 끼며 추행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신체적 추행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혼용 과정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어 수위와 반복성 등을 토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일부는 무죄로 봤다.

교복 단추가 풀린 점을 지적하며 “이러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느냐”거나 치마가 찢다며 “언덕 내려가다 넘어질 때 속옷 보인다”고 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2018년 7월 이 학교 교사 다수가 제자들을 성추행·성희롱했다는 폭로를 접수, 수사를 의뢰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교사 2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파면됐으며, 학교 측은 이들을 포함한 총 18명을 징계 조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끓는 물 붓고 불로 지지고...선배 상습 학대한 연인 구속

“재미삼아 했다” 진술  
죄의식마저 못 느껴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선배에게 끓는 물을 붓고 온몸을 불로 지지는 등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자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9일 함께 생활하는 선배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박씨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원룸에서 중학생 때 알게된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

를 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박씨 등은 중학교를 다닐 때 조정을 하며 알게된 A씨를 경기도 평택으로 불러 함께 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군 제대 후 일자리를 찾던 A씨에게 함께 생활하자며 권했고, 동거 수개월 만에 괴롭힘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등은 함께 살면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수위도 갈수록 높아졌다. 골프채 등으로 때리는가 하면, 물을 끓여 몸에 끼얹고 불로 지지는 등 악행을 저지르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몸이 데이고 머리 피부가 벗겨지는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않

았다.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면 수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는가 하면, 가혹행위로 인한 상처에서 낫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끊임없이 못살게 굴었다.

경찰은 잔혹한 범죄 행태에도,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재미삼아 했다”는 진술을 한 점에 주목,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A씨 부모는 “군대를 만기 제대할 정도로 정상이었다”면서 박씨 등의 가혹행위로 지적 장애까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외도 의심 전 부인·동료에 흥기  
5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0년

외도를 의심해 이혼한 전 부인과 동료들에게 흥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4시 13분부터 4시 20분 사이 전남의 한 주택과 공장을 찾아가 전 부인 A(57)씨와 부인의 동업자 B(여·65)씨, 직장 동료 C(67)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해왔고 공장 운영을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투다가 지난해 3월 이혼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